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참구세주

조희성님이 나이 오십이 되던 해, 1980년 10월 15일에 노고산과 소래산 사이 밀실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함으로써, 나(我)라는 조희성은 죽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온전히 좌정하셨던 것이다(연단과정 중에 손뼉과 발뼉이 다 빠지고 몸 전체가 하나님의 피로 다시 재조성되는 현상이 있었음).

1차 보광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령(聖靈)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듯이, 밀실에서 연단을 받는 과정 중에 자신을 의식하려 의식할 수 없는 무아(無我)의 경지(자신의 이름조차 생각하지 않음)에 이른 조희성님이 이긴자가 된 후에 《1차 보광》이라고 할 수 있는 빛으로 화한 적이 있는데, 이하 설교 말씀이 증명한다.

“이사람이 1980년도에 이긴자가 되어 가지고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다. 이사람을 이끌고 이 우주로 몇 바퀴를 돌았어요. - 종락- 이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점사비 행기가 바로 이사람 타고 다니던 거야.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이사람을 빛으로 화하게 해놓고 점사비행기를 타고 우주로 몇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이사람이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1989.07.09. 설교 말씀 인용).” 《유튜브 설교동영상 <https://youtube.com/AuKtW8USG2s>》

이렇게 빛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긴자 조희성님이 빛으로 화한 보광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자, 그때 밀실에서 아담 이긴자



구세주 존영사신의 눈을 바라보면 영생의 빛이 되는 감로를 받는 체험을 한다

를 키우시던 해와이긴자께서 빛으로 화한 아담 이긴자에게 밀실에서 연단받고 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적하여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라고 지시하였다.

조희성님이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해와 주님이 지적인 사람의 죄를 담당하자, 신기하게도 빛의 성체(聖體)였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인간 몸을 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 형상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속의 병마(病魔)가 소멸되어 죽을 병이 낫고 정육이 일어나지 않는 동시에 악한 마음도 사라져 양과 같이 순해지는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담 이긴자 조희성님이 태초의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던 영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치

로, 현세에 사는 인간들도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랑권을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희성님 형상을 바라보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지 않는 하나님의 몸(빛의 聖體)으로 화하여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모세가 장대 위에 놋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바라보게 함으로써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진짜 구세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다(행3:22).

2차 보광

특히 7년 동안 1차 육고(獄苦)를 치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재차 감옥으로 수감되어 《2차 보광(普光)》이 이루어질 것도 염두하셨다. 그리하여 1980년대의 초창기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상승한 2000년대에 이르자,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최근 조희성님의 존영사신을 해의 및 전국 제단에 비치하도록 지시하셨다. 그리하여 말기암 환자가 조희성님의 사신을 바라보고 완치되는 이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심지어 제단 벽에 걸려 있던 조희성님의 사진에서 감로 이슬성신이 연기처럼 뿜어져 나오기도 하였다(요엘 2:28-32).

젊은시절 조희성님이 육중에 갇힌 영모님을 면회할 적마다, 영모님께서 육군중위 조희성님의 두 손을 붙잡고 우셨다. 죄를 담당하는 고통을 먼저 겪던 영모님은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끌 하늘의 사람 조희성님이 앞으로 당할 해산의 수고(사커면 피를 위로 토하고 아래로 쏘는 행위)를 내다보시고 우셨던 것이다. 마침내 1980년도에 하나님의 빛(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한 둘째 아담 조희성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시작하자, 빛이 되신 성체에 당신과 상관없는 죄(罪)의 물질로 오염당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육신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2004년 6월 19일 2차 보광 이후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도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차원으로 영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제는 예배도 길게 볼 필요없이 구세주의 눈만 쳐 바라보면 죄가 사해된다고 말씀하심). 2차 보광을 앞둔 시점에 조희성 주님께 서 신자들에게 늘 웃으라고 한다. 이는 인두 집(인간의 몸을 뒤집어쓰고 죄를 담당하는 고통의 해산수고를 하지 않고도 원시반본된 빛의 하나님 상태에서 극락(極樂: 극도의 쾌락)을 누리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영의 단계에 이르렀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기뻐서 성도들로 하여금 웃으라고 하신 것이다.*

박대선 기자

보광 간증담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어느 때에 말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동이 비밀리에 움직여요.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어야 돼? 안 해주어야 돼?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가져가지고 또 ‘예휴, 속였다’고 이렇게 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 「2000년 11월 7일 말씀에서」

1차 육고 때부터 보광을 계획하심

구세주께서는 현금사기라는 말도 안 되는 죄로 7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실 때 재소자 중 진찰하게 지냈던 이동철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내가 이번에 석방되어 나가지만 다시 육중에 들어와 여기서 보광(普光)하게 된다.” 이런 말

씀에 이 씨는 “주님께서 영육일체를 논하셨는데... 그리고 구세주는 영생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이것은 천기에 속하는데,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루었어! 내가 희생이 되어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다 영생 얻게 된다.”라고 답변하셨다는 것이다.

과연 구세주의 그러한 말씀대로 7년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육중으로 들어가셨는데, 2차로 육중으로 들어가신 구세주께서는 그곳에서 보광(普光)하신 것이다.

한편 주님께서 7년 옥고를 치르시던 당시 해동공장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보광과 관련된 꿈을 꾸 이야기이다.

“꿈속에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운동장에서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나는 주님을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시는데 운동장

을 빠져나와 오솔길로 계속 가시더니 보광식장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다. 나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리고 잠을 깬다. 출옥하신 주님께서 3년 만에 다시 육중에 들어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보광하셨다. 그런데 보광식을 치른 곳의 꿈에서 본 그대로 똑같았다. 그리고 보광식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새로 완공된 부천종합운동장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천종합운동장에 직접 가서 처음으로 구경하니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이상과 같이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보광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보광의식을 치르는 장소와 방식조차 인간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보광 이후도 실제 모습으로 현현

2005년 2월 23일 수요일 본부제단 집무실에 보광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나타나

셨다.

해와주님께서 쇼파에 앉은 주님한테 “사람들이 당신 죽었다고 그래.”라며 꾸짖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자 “내가 죽었다고 누가 그래? 나는 죽은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단상에서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 왔잖아? 나는 사람 몸을 입고 왔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이야. 내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를 전부 해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듭난 완전무결한 의인이라는 의미야. 무죄판결도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내가 감옥을 나와서 병원에 간 것은, 죄를 담당하느라 병든 인간의 육신을 완전히 벗어나서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시반본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분신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변신의 역사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야.*”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85> “다 함께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람이 하는 기도문을 듣고 놀랍니다. 이 기도를 하면 털끝만 한 마귀도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 혼자서 마귀를 죽여 왔지만, 이제는 승리제단 식구들이

다 함께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제단 식구들은 보통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승리제단 식구들은 마귀를 죽이는 병자들인 고로 눈을 똑바로 뜨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마귀가 전멸되는 것입니다.*

제16주년 보광절

2020년 6월 19일

행복한 노년 준비 오장의 작용과 기능의 이해(비장)

비장은 왼쪽 갈비대가 끝나는 곳, 정확히 명치 밑 위장의 뒤편 등 쪽에 붙어 있습니다. 흔히 속이 울렁일 때, 비위가 상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비위가 비장과 위장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기능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장과 위장은 뿔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비장 기능이 떨어지면 동시에 위장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장이 약한 사람은 평소 피로감 무거움에 시달리며, 또 몸이 비짜 마르게 되고 영양장애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래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식물을 소화시켜 정상적인 생명 활동에 필요한 영양 물질을 온몸에 공급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비(脾)를 ‘후천의 기(氣)를 공급하는 근본(後天之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물질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비(脾)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운화(運化) 기능’이라고 합니다. 비(脾)의 운화 기능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영양 물질을 흡수하여 온몸의 장기와 조직에 공급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폐, 신, 심초 방광과 함께 몸안의 체액을 돌아가게 하고 배설 작용을 하게 하여 수분 대사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뜻합니다. 이 두 번째 운화 기능은 바로 이어서 말할 수분 대사 기능을

가리킵니다. 둘째, 수분의 흡수와 배설 기능을 주관합니다. 저녁에 밥을 많이 먹고 잤을 때 눈이 푸석푸석 붓는다거나 급체했을 때 붓는 증세가 오는 것은 비(脾)의 이러한 기능이 장애가 온 것입니다.

셋째, 비(脾)는 온몸의 피가 정상적으로 혈액 속을 따라 순환하도록 조절하고 통출합니다. 이러한 기능에 장애가 오면 코피, 붕루(치궁출혈), 빈혈, 피하 출혈 등 출혈성 증세와 함께 비(脾)의 기(氣)가 허해지는 증세가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입 및 입술과 관련이 있고, 팔다리 근육의 영양과 활동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비(脾)가 입과 관련 있다는 말은 주로 입맛과 관계됨을 뜻합니다.

비(脾)의 기가 허해지면 아무런 입맛을 모르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증세를 일으키고 비(脾)에 습열(濕熱)이 있으면 단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입술과 관련 있다는 것은 입술의 색깔이나 건조감 등이 비(脾)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비(脾)는 살(肉)을 주관하여 살은 비(脾)의 소화기능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영양물질을 받아서 튼튼해 집니다.

만약 비, 위의 장애로 영양 물질을 잘 공급받지 못하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 비장을 강화하려면 우선 적절한 운동과 균형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가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비위 상할 일을 보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본부제단 5월 성적 1등 4지역 개인 1등 이영애 권사



4지역 이영애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윤봉수 신도회장)은 9일(화요일) 구역장회의를 열고 본부제단 5월 성적에 대한 우수자들에게 시상하였다.

- 지회장: 이영애
-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3등: 2지역(지역장: 서보복, 지회장: 김혜선)

- *구역 1등: 15구역(구역장: 김혜선) 2등: 14구역(구역장: 서보복) 3등: 32구역(구역장: 홍경숙)

- *개인 1등: 이영애 권사 2등: 정수윤 승사 3등: 서보복 승사*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나를 이기는 삶

행운을 부르는 법칙은 따로 없다. 행운은 나를 이기는 삶을 좇아 나올 뿐이다. 운이 나쁘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천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운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절대 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운(運)이란 ‘꿈어린 것을 이어주는 것’ ‘망기린 것을 고쳐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이란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중에 언제 시작하고 언제 거둬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 시기, 즉 때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뭇다운 사람, 진짜 사람이 되면 운이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다. 이 책에서 권하는 지혜로운 글들은 행하는 문들은 운이 활짝 열릴 것이다. 대운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란다...

박철수 필자작 박철수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주일학교 교사, 찬양부장, 찬양지휘, 청년회장을 거치면서 현재는 무궁화 합창단 지휘자, 드림넷 연주자 및 무궁화 관련인단 약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통해 자연히 정신세계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살면서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글들을 틈틈이 작성 실천하고 있다. ps03393@naver.com

46면형 / 256면 / 김 13,800원 / 도서출판 해인 TEL : (032) 343-9985 Email: bookman5@naver.com

시간서적

도서출판 해인